

2월 직원회의 전달내용

※ RFID 전송률 100%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 앞치마 착용을 습관화!!
- 급여제공 시간에는 개인 업무 및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 근무 시 변경사항 있으시면 반드시 센터로 미리 연락 주세요!!
(시간, 요일 변경 및 특이사항 등)
- 근무 시 고충 사항(수급자와 보호자와 의견 충돌 등) 있으시면 센터로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 근무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주의 요망!!
어르신 케어 중 일어나는 작은 사고라도 보호자에게 알려드려야 하며, 기관에도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반드시 본인 일정표대로 근무하여야 하며 30분 이내

연장하여 근무했다 하여도 수가 산정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근무 시작과 근무 종료 시간 5분 정도 여유 있게 하시어 태그 산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안내

: 2025년도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센터로 제출 바랍니다. (5개 영역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결과서에 검진일과 결과판정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025년도 보수교육 이수하셔서 센터로 이수증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별교육으로 센터와 일정 협의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전문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은 개별적으로 센터에 신청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 주의 사항 안내.



1. 온도변화: 노령자일수록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가운 밖에서 뜨거운 물이 만나면 몸은 녹아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밖으로 나올 때 기온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체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될 수 있다면 아직 온기가 남은 장소에서 몸과 머리를 완벽하게 말린 뒤 옷을 입고 서서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조함: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건조함은

심해집니다. 추운 날씨 속 목욕을 한다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건조함이 심해져 가려움증 혹은 각종 피부 트러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미끄러짐 사고: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의 미끄러짐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 욕조 주변과 욕실에는 슬림 방지용 매트를 깔고 직접적인 발이 닿은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의를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건강상태 확인: 체크해야 할 점이 바로 건강상태입니다. 어르신 목욕케어 전,후 건강상태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태변화 기록지 양식 변경 및 작성 방법 안내 (뒷면 참조)

- 겨울철 화상 대처법 안내. (뒷면 참조)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상태변화기록지

(년 월)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결재

시설장

장기요양기관번호	2-41190-01406	장기요양기관명	비전재가요양센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
수급자성명	조성호	생년월일	1950. 07. 06		장기요양인정번호	L2212051488
기간	주간 신체정결 관찰 상태 (양호: ○, 보통: △, 나쁨: ×)		주간 욕창 및 상처 관찰 상태		주간 기능회복훈련 제공 현황	
첫째주 (월 일)	머리	얼굴	상체	하체	욕창(부위)	상처(부위)
수급자 상태	어르신의 상태를 입력한다.					
조치내용	어르신 상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					
결과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받고 어르신이 나타내는 반응 또는 결과					
특이사항	병원동행 등				작성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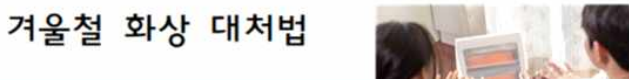
- 해당사항에
(○,△,×) 표시.

- 욕창이있을시
(ex. ○(꼬리뼈))

- ☆ 주의사항
- 상태란 : 신체상태, 인지기능 상태, 정서적인 상태.
어르신의 몸 상태(통증, 신체기능, 소화상태, 연하곤란, 운동기능, 배변, 소변상태 등)
기분변화(우울감, 조울증, 외로움 호소, 고립감 호소 등)
인지변화(치매증상, 기억력 저하, 분노조절 등)
영양상태(소화상태, 연하곤란, 수분 섭취 등)

- 주 1회 어르신 케어 작성

-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의 케어를 할 때 본인의 감정과 불만을 적는 것이 아닌 실제 요양서비스를 했을 때 어르신의 반응, 상태,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상 사례

1. 저온화상
- 겨울철 흔한 저온화상은 40도~ 60도 내외의 온도에 장시간 피부에 닿았을 때 나타는 화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정도 온도로 화상을 입겠어?'라고 생각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무심코 온열기구를 사용하다가 저온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겨울철 핫팩을 피부에 붙였다 떼어냈을 때, 혹은 온열매트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한 뒤 피부가 빨개지면서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있다면, 저온화상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2. 전기화상
- 전기화상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철판, 다리미, 전기장판 등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접촉 화상은 3도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일상화상
- 뜨거운 기름이 튀거나 끓는 물, 압력밥솥이나 주전자 등의 수증기, 고데기, 가열된 냄비 표면에 피부가 닿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화상은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인 만큼 전기나 뜨거운 물체를 다룰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화상 초기 응급처치법

응급처치 하나! 화상 부위에 옷이나 천이 들러붙지 않도록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둘! 찬물로 씻어내어 피부를 진정시켜주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15분 이상 충분히 찬물로 씻어내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셋! 흐르는 찬물에 화상 부위를 충분히 씻어냈다면 물에 흠뻑 적신 수건을 화상 상처에 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 저온화상 진단법은?

- 일반적으로 육안 소견을 통해 진단하며 특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균 배양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저온화상 응급처치법

응급처치 하나! 저온화상 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냅니다.

응급처치 둘! 생리 식염수가 없다면 아이스팩이나 얼음물 혹은 수건에 얼음을 넣고 감싸겨 저온 화상 부위에 냉찜질 합니다.

응급처치 셋! 저온화상 증상이 심한 경우 절대 손으로 건드리거나 터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 저온화상 예방하는 방법은?

-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열 기구 표면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담요나 천을 덧대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기구를 쓰다 피부가 간지러우면 저온 화상의 신호이므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수면제 복용 등의 상태에서는 감각이 무뎌져 뜨거움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온 열 기구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